

“NBA 최고 선수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 야니스 아데토쿤보, 사진=marketwatch.com

전날 ‘아데토쿤보가 최고 선수인가(Is Antetokounmpo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NBA 최고 선수 논쟁에 불을 지폈다. SI는 케빈 듀랜트,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르브론 제임스 (LA 레이커스) 등도 거론했지만, 아데토쿤보가 현재로서는 최고라고 평가했다.

우선, 아데토쿤보는 지난 시즌 50년 만에 밀워키를 NBA 정상에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NBA 파이널 MVP에 선정됐다.

SI는 아데토쿤보가 최고의 선수로 언급되는 다른 모든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수비수라고 치켜세웠다. ‘올해의 수비수 상’ 을 수상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BA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현재 아데토쿤보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기록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 강력한 MVP 후보 중 한 명인 듀랜트 역시 만만치는 않다. 듀랜트 역시 파이널 MVP 출신이다. 중장거리슛에서 그를 능가할 선수는 커리를 빼고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그는 수비에서 아데토쿤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 역대 최고 선수가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현역 최고는 누구일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야니스 아데토쿤보(밀워키 박스)와 케빈 듀랜트(브루클린 네츠)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마니아타임즈’ 에 따르면 ‘SI닷컴’ (si.com)은

벤투호 월드컵 최종예선 6차 이라크전 ‘중립 경기’ 진행



▲ 경기도 파주 NFC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비 소집 훈련을 하고 있는 축구 A대표팀, 사진=대한축구협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오는 16일(이하 한국시간)로 예정된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를 카타르 도하에서 치른다. 당초 이 경기는 이라크 남부의 항구도시 바스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라

크 내 치안 상황 등 각종 문제로 제3국에서 진행하게 됐다.

벤투호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상대의 홈어드밴티지를 자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소득이고 불안한 배경을 지우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반갑다. 정우영(알사드), 남태희(알두하일) 등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 이런저런 조안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나쁠 것 없다.

반면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이라크로서는 홈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해 반가울 리 없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각 팀당 10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다. 한국은 최종예선 4차전까지 2승2무 승점 8를 기록하며 이란(3승1무 승점 10)에 이어 조 2위에 올라 있다.

벤투호는 오는 11일 저녁 8시 아랍에미리트(UAE)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5차전을 치른 뒤 이라크와 격돌한다. UAE와는 첫 만남이고 이라크와는 1차전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로버츠 감독 “다저스와 재계약 기대”



▲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 사진=mlb.com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한 데이브 로버츠(49) LA 다저스 감독이 연장 계약을 희망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OSEN’ 에 따르면 ‘LA타임스’ 는 지난 24일 로버츠 감독이 다저스와 연장 계약을 원한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 다저스와 3+1년 계약으로 사령탑에 부임한 로버츠 감독은 2018년 12월 옵션 포함 4년 연장 계약에 성공하며 내년까지 지휘봉이 보장됐다.

지난해 다저스를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며 숙원을 푼 로버츠 감독이지만 올해는 실패했다. 팀 역대 최다 타이 106승을 썼으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1승 차이로 밀려 9년 연속 지구 우승이 좌절됐고,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애블랜타 브레이브스에 2승4패로 패하며 월드시리즈 2연패 꿈도 무산됐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아직 구단과 연장 계약을 논의한 적은 없다.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은 걸 알고 있지만 연장 계약을 기대한다. 다저스는 내가 계속 있고 싶은 곳이다. 올 겨울 어느 시점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 고 기대했다.

성과만 놓고 보면 로버츠 감독의 연장 계약 요구는 타당해 보인다. 부임 후 6년간 성적은 542승 329패로 4년 이상 팀을 지휘한 다저스 역대 감독 중에서 최고 승률(.622)을 자랑한다. 1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2번의 월드시리즈 준우승, 5번의 지구 우승을 달성했다. 다저스 역대 한 시즌 최다 106승 기록도 모두 로버츠 감독과 함께였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